



5면

전주 도약 · 시민 생활 편의 예산 확보 '강행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음 10월 30일) 제314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온 힘'

전북도, 국회 찾아 법사위 ·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 새만금사업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주력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실무직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뿐 아니라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감면 등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직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현, 이탄희의원 등 법사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22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면담을 갖고 있다.

김광수 도 정무수석은 기동민 법사위원을 비롯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유동수·양경숙·김상훈·진선미 의원을 만나 기재위 위원을 공략하고, 박성태 정책협력관은 법사위 전주혜, 조수진의원과 기재위 주호영의원 등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뒷심을 더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각오로 인력풀을 총 가동하고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통해 연내 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현안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를 전북에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특히 전북도의 핵심 목표인 '전성기(전북에서 성공할 기업)'를 위해서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0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같은 해 9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중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김경수 기자

도,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대비 안전대책반 구성·운영

가나·포르투갈 등 앞두고 경찰·소방과 협조체계 유지

14개 시·군 재난부서와도 실시간 상황 공유·대응키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월드컵 기간 거리응원에 나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행사 주최 측을 통해 행사의 규모 등을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다중집합 장소의 안전성 여부, 행사장 내 적정인원 수용규모, 안전요

원 배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접 경찰서, 소방서와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여부 등을 파악했다.

도는 앞으로 예정된 대한민국 대가 나전(11월 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전(12월 4일 오전 0시)을 앞두고도 전북경찰청, 소방본부와 도내 거리응원전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

를 유지하고 14개 시·군 재난부서와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잘잘한 날씨에도 거리응원전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민간주도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하가 구석기 유적이 위치한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전경.

임실 가덕리 하가 유적지 '후기 구석기 문화의 보고'

전북도 기념물 지정 예고... 고고학적 가치 높아
좁돌날몸돌 · 새기개 · 스페찌르개 등 유물 출토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소재 약 3만2,191㎡의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이 최근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하가 유적은 용요사에서 뻗어 내린 긴 능선의 끝자락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S자를 그리면서 흐르고 있는 섬진강 신평천과 맞닿아 있다.

지난 2000년 조선대학교 박물관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1,035㎡를 발굴했다.

그 결과 각추상석기(모뽀석기), 나이프형 석기, 돌확모양석기, 각종 찌르개류, 좁돌날몸돌 등 2만 7,000여 점이 수습됐다.

유적의 탄소연대측정 결과 대략 기원전 2만1,300년~2만1,500년대 중으로 추정되며, 문화유적의 분포도 약 10만㎡ 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전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하가 유적 출토유물이 한반도 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석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좁돌날몸돌을 비롯해 새기개, 스페찌르개, 나뭇잎 모양처럼 쪼개지며, 스페찌르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석기 기술의 이동과 관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모뽀석기(각추상석기)의 경우 일본과 중국에서 발견 사례가 높은 석기형식으로 한·중·일 석기문화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등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 가덕리 후기 구석기 유적은 연천 전곡리 전기 구석기 유적, 공주 석장리 중기 구석기 유적과 함께 한반도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인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국가 사적 지정에도 힘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IMSIL-GUN 임실군 축! 전주매일 창간

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